

이 규 환
 건축전시준비위원회 위원
 by Lee Kyu-hwan, KIRA

한국건축산업대전 - 01 그 시작과 준비

Architecture Industry Exposition of Korea - 01
 Inauguration and Preparation

feature

2006년 9월 13일(수)부터 9월17일(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는 곧 우리가 건축산업의 중심에 서있으면서도 진정 그 역할에서 소홀히 되어 왔던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기 시작하는 커다란 외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유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21세기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는 산업전시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다른 전시회와 무엇이 다르며,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등을 함께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본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전시회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산업전시회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전시회란 과학문명의 발달정도를 알리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할 경우는 박람회, 산업체의 이윤추구가 보다 큰 목적일 경우는 전시회라 부른다. 여기서 다시 대중을 주고객으로 하는 경우는 대중산업전시회, 전문가를 주고객으로 하는 경우는 전문산업전시회라 세분화 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이 전문전시회를 기본으로 하되 동시에 건축에 대한 바른 홍보와 대중을 계몽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함께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산업전시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규모면에서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경향하우징페어를 비롯해서 홈텍스, MBC건축박람회 심지어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하우징브랜드 페어까지 아니 좀 더 확대하면 부산, 대구, 광주, 기타 전시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건축산업전시회까지 그 내용에 있어 모두가 같은 자재 전시회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재전시회가 마치 건축전시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용어가 '명품주택', '명품자재' 등과 같은 매우 우습고 불건전한 표현들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전시기획사들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진대 일부 건축인단체 등에서 행하는 전시회가 그저 보고 즐기는 우리들만의 문화축제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건축전시회는 자재전시회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우리 역시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자재전시회를 하나 더 만들자고 주장한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 진정한 건축산업전시회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산업전시회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전시회는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탄생된 '신생산업'으로서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매개로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구매자를 대표하는 참관객과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시자간에 거래와 상호이해를 주목적으로 진행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이다. 또한 전시회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 기업간의 교역의 장이 될 것. 둘째, 최첨단 기술 비교의 장이 될 것. 셋째, 최신 정보 획득의 장이 될 것. 넷째, 상품과 기술의 판매 및 기술 이전의 장이 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유형과 무형'이라는 낱말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산업전시회를 다른말로 견본품을 전시하는 견본전시회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건축산업 전시기획자들은 견본품을 건축자재라는 '유형'의 상품에서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회에 내놓을 '유형과 무형'의 건축견본품이 건축자재에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즉 자재산업전시회가 아니라 건축산업전시회는 지금부터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몫으로 남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건축산업대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생각의 출발은 건축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전문가이다 보니 굳이 건축의 정의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건축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문화와 공학기술의 종합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합체를 만들기까지는 건축설계는 물론 토목, 구조, 기계 및 전기, 조경, 인테리어설계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 건축자재가 적용되고 이를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등 매우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그래픽, 모형, 교육, 출판, IT·소프트웨어 및

부동산개발·분양 등 그 관련분야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를 다 모은 것이 건축산업일 것이며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건축산업전시회라 할 것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이러한 건축전문가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혹시, 이들 모두의 참여가 주제없이 산만한 전시회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축산업이란 결국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니 우리의 전시회 역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즉 표현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하되 여기에 관련된 건축전문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이 건축물의 견본품 즉 모형, 판넬, 도면 등을 전시품으로 내세우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건축전문가들이 함께 전시관을 공동으로 꾸미는 것이다. 이럴 경우 관람객은 전시견본품을 문화적 전시품으로 관람할 것이며, 동시에 관련전문가들은 전시물에 대한 실제 건축기술의 적용여부를 설명하게 된다. 물론 이때 회사를 홍보하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우리는 '건축프로젝트관'이라 부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서 설명하겠다.

'건축프로젝트관'에는 건축사무소와 건설회사, 자재회사, 기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첫 전시회인 관계상 전시규모가 약 1,600평 정도로 비교적 작은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건축프로젝트관'은 약 30~40개 정도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경우는 약 30~40개의 '건축프로젝트관'에서 모두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건축물에 적용된 수많은 자재의 종류를 모두 전시할 수 없기에 공동관을 구성하기로 협의한 몇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회사들은 결국 별도의 전시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우수자재전시관'을 마련했다. 그냥 건축자재전시관이 아니라 우수자재라는 표현을 한 것이니 이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시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여업체의 전시품이 좀 더 선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전시업계에서는 항상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시기획사들은 많은 참여업체가 있어야 수익이 보장된다 보니 전시품의 선별작업은 현실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건축사는 물론 건축계 전체의 홍보와 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시작한 전시회만큼 우수한 자재업체에게 보다 많은 홍보와 마케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제물이 건축 실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함으로써 건축전문가들은 믿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건축의 질적 향상을 낳을 것이며 궁극에는 건축계 전체가 동반상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품의 물리적 성질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 시공성, 유지관리의 우수성, 신뢰성 및 기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건축전문가들이 실무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설계표준자재인증'이라 부르기로 했으며, KS제품인증과는 다른 진정한 건축전문가들을 위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전시회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하여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결국 자재회사에서 '우수자재전시관'에 전시품을 출품한다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축전문가들과 인연을 맺고 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전시공간이 '국토개발 및 지역홍보관'이다. 이는 말 그대로 국토개발상황을 참관객들에게 홍보하는 곳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전시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건축전문가들의 노력을 함께 보여주고자 함도 목적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의 수많은 국토개발 사업에서 우리 건축전문가들의 노력을 어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그 결과는 항상 남의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은연중에 배제되어 온 것이 한두번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번 '국토개발 및 지역홍보관'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전시내용의 성격상 위의 3가지 전시관에서 전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각 참여업체별 성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전시방법을 택할 수 있는 '전문전시관'을 구성하기로 했다. 컨설팅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고, 특수시설이나 특별한 건축협력업체를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이란 원래 수많은 전문분야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전문전시관'의 활성화는 곧 참관객들에게 건축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적 전시회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전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계에서 항상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전문가의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세미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축의 대표적 건축상 및 작품전시회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공동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이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얼핏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시산업계에서 매우 획기적인 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도 그러한 기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처음에도 말했던 내용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건축전문전시회라는 것이 없는 탓이고, 현재 활동하는 건축전시기획사들이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다른말로 하면 우리들이 앞으로 진출할 분야 이곳에도 분명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흔히 말하는 업역확대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말로써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지금 전시회를 개최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3가지만 생각해 보겠다.

첫째,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이미 30여년이란 세월동안 전시산업이 유지되어 왔었지만 그 성장의 곡선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국제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세계시장과의 무역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교역을 위한

전시산업의 성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에 최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기에 봤을 때 전시산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지금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둘째, 서울 삼성동 코엑스라는 전시컨벤션센터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가동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나 일산 고양시에 새롭게 건립된 킨텍스전시장(2005년 4월 개장)은 그 규모면이나 앞으로의 역할상 특히 중량물, 대공간의 전시품 전시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시산업계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것이 명백하다. 그 증거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던 많은 전시회가 일산 킨텍스로 이전되었는데, 이에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각 전시컨벤션센터들은 자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유치되고 있는 각종 산업전시회에 대한 차별화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 차별화전략에 「한국건축산업대전」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셋째, 산업전시회란 참가업체의 홍보와 매출증대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지금 건축계에 불어닥친 불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데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고 한번 해 본 적 없고, 회사홍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건축불황은 건축전문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너무나 훌륭한 전문가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제 능력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낭비임에는 분명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 방법을 가장 적절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기에 여러분에게 알리게 된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 우연한 기회에 전시업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후로 종종 건축산업전시의 발전가능성을 고민해 왔었다. 그 사이에 산업전시회에 참여하는 여러 건축전문가들을 만나서 참여 이유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이번 전시회는 분명 건축전문가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될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유를 알고, 가야할 길을 알기에 그 방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한 만남이 부디 회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